

대한민국 비보이 크루의 대중성과 차별성

김 기 국*

1. Korean Power Style, B-boy
2. 비보이의 탄생과 변천
3. 한국 비보이의 차별성과 강점
4. 한국 비보이 문화의 발전을 위한 제언

〈국문초록〉

오늘날 국내의 비보이 크루들은 세계 비보이 영역에서 최정상의 독보적인 존재로 신화를 일궈내고 있으며, 비보이는 한국을 대표하는 새로운 문화 코드이자 문화콘텐츠로 대중들의 시선을 끌고 있다. 그 결과 한국관광공사는 대한민국 비보이를 새로운 한류 콘텐츠로 지목하고 세계 최대 규모의 ‘R-16 코리아, 세계 비보이 마스터즈 대회(R16 Korea, World B-boy Masters Championship)’를 2007년부터 개최, 비보이의 메카를 독일에서 대한민국으로 이동시키기에 이른다. 이제 비보이의 존재와 비보잉(B-boying)은 지금까지의 부정적인 시각과 오해에서 벗어나 하나의 독립된 문화의 유형이자 몸으로 표현하는 가장 역동적이고 아름다운 예술로까지 평가받고 있다.

이 글에서 우리는 21세기 뉴미디어 시대에서 한국의 비보이가 어떻게 한국을 대표하는 디지털 문화콘텐츠로서 자리매김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우리는 힙합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 비보이가 어떻게 태동되고

* 경희대 프랑스어학과 교수

발전하였는지, 세계 4대 메이저 대회에서 대한민국의 비보이 크루가 어떤 성과를 보였는지, 이러한 성과가 가능했던 한국 비보이만의 강점은 무엇인지 등을 알아보았다. 아울러 한국에서 비보이가 하나의 확고한 대중문화로 자리매김하기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제안하였다.

주제어 : 비보이, 한국 비보이 크루, 힙합, 문화콘텐츠, 비보이 문화

1. Korean Power Style, B-boy

2011년 8월 28일 미국 로스엔젤레스 산타 모니카(Santa Monica) 거리에 위치한 헐리웃 서커스(Circus Hollywood)에서 열린 ‘프리 스타일 세션 14(Free Style Session)’에서 한국 비보이 팀, ‘진조 크루(Jinjo Crew)’가 우승을 차지한다. 그동안 한국의 비보이 크루들은 세계 4대 메이저 비보이 대회인 Battle Of The Year(독일, 이하 BOTY), ‘UK B-boy Championship’(영국), ‘Red Bull BC ONE’(각국 순회 개최) 등에서 세계 최정상의 기교와 퍼포먼스로 연이은 우승 소식을 알려왔다. 하지만 비보이의 탄생지라 할 수 있는 미국에서 개최되는 메이저 대회인 프리 스타일 세션에서는 번번이 고배를 마셔오다, 진조 크루가 한국은 물론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정상을 차지한 것이다. 이로써 한국의 비보이들은 1980년대 이후 한국에 브레이크 댄스(break dance)가 전해진지 4반세기 만에 전 세계의 메이저 비보이 대회를 모두 석권하게 되었다.¹⁾

그렇지만 4대 메이저 대회를 비롯해서 유수의 비보이 대회에 출전할

1) 한국에 브레이크 댄스라는 이름으로 비보이가 알려진 것은 마이클 잭슨(Michael Jackson)의 <스릴러 Thriller>(1982) 앨범에 수록된 노래 ‘빌리 진(Billie Jean)’을 통해 잭슨의 트레이드 마크가 된 ‘문 워크(moonwalk)’, 영화 <플래시댄스(Flashdance)>(1983)에 출연해서 대중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준 ‘록 스테디 크루(Rock Steady Crew)’의 브레이크 댄스, 그리고 로널드 레이건(Ronald Wilson Reagan)의 대통령 취임식(1985) 때 축하공연을 한 ‘뉴욕 시티 브레이커스(New York City Breakers)’의 비보잉 퍼포먼스가 AFKN에 의해 방송되면서부터이다.

때마다 자신들의 이름을 세계에 알리고 ‘비보이의 교과서’로 통하며 세계 비보이계의 큰 흐름을 주도하는 한국 비보이의 시작은 미미하였다. 1980년대에 이미 대중문화로 자리매김한 미국의 브레이크 댄스가 알려지면서 한국에서도 브레이크 댄스 열풍이 불긴 했지만,²⁾ 한국의 비보이는 독립적인 춤으로서 대중들에게 인식되지 못하였다. 청소년 시기에 가장 중요한 학교생활과 공부를 뒤로 한 채 힙합 풍의 옷차림을 하고 오직 춤에만 매달리는 비보이들은 기성세대의 관점에서 불량 학생들이자 문제아 집단일 뿐이었다. 따라서 그들이 보여주는 춤 또한 생소한 문화인 힙합 hip hop을 받아들여 젊은이들의 독특한 문화를 구현하는 것이 아닌 편견과 선입견으로 뭉쳐진 음지의 문화이자 하위문화일 뿐이었던 것이다.

다양한 공연이나 행사에 빠질 수 없는 출연자로 섭외되는 오늘의 현실과 달리 초기 비보이들의 경제적 활동무대는 주로 밤무대에서 춤을 추는 것이었다. 좋아하는 춤을 위해서 혹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들은 방송 댄스 팀의 일원이 되거나 대중가수들의 백업댄서로서 가수들의 노래에 맞춰 잠깐씩 비보이의 기술을 하나씩 선보이게 된다.³⁾ 안무가의 이

2) 1980년대 미국의 브레이크 댄스에 영향을 받아 힙합을 선보인 춤꾼들에는 도건우(소방차), 박남정, 현진영, 강원래(현진영과 와와), 양현석과 이주노(서태지와 아이들), 박철우(R.ef), 이현도와 김성재(듀스) 등이 있다. 이들은 통칭 비보이 1세대를 구성하는 춤꾼들이었다. 이들 연예인 외에도 1980년대 중반부터 90년대 초까지 활동했던 비보이 크루 ‘서브웨이(Subway)’가 자신들의 팀명을 내걸고 방송 활동을 하였다. 이에 대한 자료는 다음 책을 참조할 것. 김영대 외, 『한국 힙합, 열정의 발자취』, 한울출판사, 2008, 189-191쪽; 이우재, 『힙합, 새로운 예술의 탄생』, 돌출새김, 2010, 58-59쪽; 장경호, 『2006년도판 한국 비보잉씬』, <http://cafe.daum.net/bboy>의 ‘Darkness 비보잉 칼럼’(미출판 자료).

3) 이 당시 활약했던 방송 댄스 팀으로는 ‘인순이와 리듬터치’, ‘스파크’, ‘박남정과 프렌즈’, ‘현진영과 와와’, ‘나미와 봄봄’ 등이 대표적이다. 이우재, 앞의 책, 62쪽. 방송 댄스 팀이나 백업 댄서로서 이들 비보이들이 보여준 기술에는 레인보우 Rainbow(등이 땅 쪽으로 향한 채 양팔과 양발로 지탱하는 브릿지 동작에서 발을 차서 몸을 허공으로 띄워 한 바퀴를 도는 스타일 무브 Style Move), 원 킥 One Kick(차려 자세에서 뒤로 넘어지면서 두 팔로 몸의 중심을 잡고 한 다리를 하늘로 차올리는 동작), 투 킥 Two Kick(두 팔로 온 몸의 중심을 지탱하면서 양발을 차올리는 동작), 백 플립 backflip 등이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자료를 참조하였음; 장경호, 『2006년도판 한국 비보잉씬』, <http://cafe.daum.net/bboy>의 ‘Darkness’

름도 나오지 않는 춤, 유명 가수의 노래와 무대에 맞춰진 춤만을 연습할 수밖에 없었던 현실, 그리고 안무와 백업댄서 비용 등의 일정하지 않은 수입 등은 한국에서 비보이 문화의 안착이 얼마나 열악했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 하겠다.

이처럼 처음부터 사회와 문화의 코드로 인정받지 못했던 비보이가 대중들에게 광범위하게 알려지게 된 것은 역설적이게도 백업 댄서 출신의 가수들의 활약 덕분이다. 양현석과 이주노, 박철우, 현진영, 강원래, 김성재, 이현도 등은 노래만이 아니라 춤에서도 다이내믹한 기량을 보여줌으로써 시청자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그들을 매료시키게 된다. 이들 댄서 출신 가수들이 보여준 두 세 바퀴 정도의 헤드 스핀(head spin, 목 하나만으로 몸을 지탱하며 회전을 하는 파워 무브 기술)과 간단한 비보이 기술, 그리고 김수용의 <힙합>이라는 비보이를 주제로 한 만화가 청소년들 사이에 화제가 되면서 점차 한국 비보이의 화려한 비상을 준비하는 새로운 물결을 만들게 된 것이다.

오늘날 국내의 비보이 크루들은 세계 비보이 영역에서 최정상의 독보적인 존재로 신화를 일궈내고 있으며, 한국을 대표하는 새로운 문화 코드이자 문화콘텐츠로 대중들의 시선을 끌고 있다. 그 결과 한국관광공사는 대한민국 비보이를 새로운 한류 콘텐츠로 지목하고 세계 최대 규모의 ‘R-16 코리아, 세계 비보이 마스터즈 대회(R16 Korea, World B-boy Masters Championship)’를 2007년부터 개최, 비보이의 메카를 독일에서 대한민국으로 이동시키기에 이른다. 이제 비보이의 존재와 비보잉(B-boying)⁴⁾은 지금까지의 부정적인 시각과 오해에서 벗어나 하나의 독립된 문화의 유형이자 몸으로 표현하는 가장 역동적이고 아름다운 예술로까지 평가받고 있다.

비보잉 칼럼(미출판 자료).

- 4) 비보이와 비보잉은 동일한 의미로 혼용해서 쓰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때로는 비보이가 춤을 추는 행위를 비보잉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다. 이 글에서는 특별히 비보이와 비보잉을 구별할 필요가 있을 때만 분리해서 쓰겠다.

이 글은 21세기 뉴미디어 시대에서 한국의 비보이가 어떻게 한국을 대표하는 디지털 문화콘텐츠로서 자리매김했는지를 살펴보고자 마련되었다. 이를 위해 우리는 힙합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 비보이가 어떻게 태동되고 발전하였는지, 세계 4대 메이저 대회에서 대한민국의 비보이 크루가 어떤 성과를 보였는지, 이러한 성과가 가능했던 한국 비보이만의 강점은 무엇인지를 등을 알아보겠다. 아울러 한국에서 비보이가 하나의 확고한 대중문화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제안하겠다.

2. 비보이의 탄생과 변천

비보이를 말할 때 항상 언급되는 것이 힙합이다. 힙합은 1980년대 미국 뉴욕의 할렘(Harlem)가에 사는 흑인이나 스페인계 청소년들 사이에서 생겨난 새로운 문화운동 전반을 지칭한다. 박자가 빠른 리듬에 맞춰 자기 생각이나 일상의 삶을 랩핑(rapping)함으로써 관중을 감동시키는 MC(Mic Controller, 혹은 MCing). 두 대의 턴테이블, 두 장의 동일한 음반을 활용, 음반을 역회전시키거나 스크래치(scratch)를 일으키며 브레이크 비트 (breakbeat)를 만들어 내며 음악을 재편집하는 새로운 형태의 DJ,(Disk Jockey, 혹은 DJing). 에어스프레이나 페인트로 벽이나 다리교각, 전철(역)의 공간에 독특한 모양의 글자, 그림, 문구를 그려넣은 낙서인 그래피티(graffiti). 힙합 댄스의 한 형태로 순수히 몸으로만 마치 곡예와도 같은 격렬하고 역동적인 동작을 보여주는 비보이(또는 비보잉). 이렇게 네 가지 요소로 구성된 힙합은 1990년대 들어 전 세계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음악은 물론 그림, 패션 및 액세서리, 그리고 춤 등 여러 부문에서 보다 자유롭고 즉흥적인 하나의 문화 스타일을 만들어냈다. 이제 보다 구체적으로 비보이의 탄생 역사를 알아보자.

(1) 힙합과 비보이의 태동

비보이의 기원에 접근하는 관점에 따라 달라지긴 하지만,⁵⁾ 힙합 춤과

연계된 비보이의 태동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은 쿨 허크이다. 디스코 열풍이 불던 1970년대, 뉴욕에서 D.J.로 활약했던 자메이카 출신 쿨 허크(Kool Herc)는 레코드에서 노래 중간에 가사 없이 간주만 나오는 부분(break)을 반복해서 오래 들려주게 된다. 허크는 간주나 변주를 위해 만들어진 음악 장치인 이 브레이크 부분만을 편집, 원곡과 다른 새로운 음악으로 재구성함(break beat)으로써 힙합을 구성하는 디제잉을 관객(청중)들에게 보여주었다. 그는 비트만 반복되는 곡中间的 짧은 부분을 지속시키기 위해 동일한 두 장의 레코드판을 두 개의 턴테이블에 각각 올려놓고 동일한 부분을 앞뒤로 반복해서 들려주었다. 이를 통해 “꽤 분절적이고 예측하기 어려운 변박이 불연속적으로 튀어”나왔을 것으로 짐작되는데,⁶⁾ 브레이크 시간 때 무대로 나와 혼란하고 복잡한 비트에 맞춰 브레이크 댄스를 추는 사람을 비보이라 부르게 된다. 결국 비보이(또는 비걸 B-girl)에서의 ‘B’는 breaking(break dance)을 지칭하며, 비보이는 브레이크 댄스를 전문적으로 추는 사람을 일컫는다.

쿨 허크가 비보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여 비보이의 탄생을 알렸다면, 아프리카 밤바타(Africa Bambaataa)는 힙합의 기초가 되는 디제이, 엠씨, 그래피티, 그리고 비보이를 모아 ‘줄루 네이션(Zulu Nation)’이라는 힙합의 시발점이 되는 팀을 구성한다. 그리고 비보이 역사에서 커다란 족적을 남긴 전설적인 그룹, ‘록 스테디 크루’(이하 RSC)를⁷⁾ 1982년 줄루

5) 아프리카 노예로부터 그 기원을 찾는 힙합 춤의 하나인 브레이크 댄스를 유행시킨 사람으로 제임스 브라운(James Joseph Brown)이 거론되기도 한다.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가수이자 ‘솔(Soul) 뮤직의 대부’라 불리는 그가 1972년에 발표한 싱글 앨범인 <Get on the Good Foot>에서 브라운은 리듬에 맞춰 기존과는 다른 독특한 춤 동작을 보여주었다. 이후 그의 춤을 발전시킨 브레이크 댄스가 미국에서부터 유행하기 시작한다. 이우재, 앞의 책, 41쪽.

6) 허크가 한 기법은 스크래칭(scratching)으로서 힙합의 디제잉의 기본적인 기법이다. 그는 노래 중에 너무 짧은 브레이크 연주 부분을 이 기법을 활용하여 늘려 랩핑과 비보잉을 탄생하게 한다. 브레이크 비트에 대한 음악적 해석 부분은 다음 책을 참조하였음. 김영대 외, 앞의 책, 186쪽.

7) RSC는 1977년 뉴욕 브롱크스(Bronx) 비보이팀에서 활동하던 지미 디(Jimmy D)와 조조(Jojo)가 주축이 되어 결성한 그룹이다. 이들은 영화 <Wild Style>(1982), <플

네이션에 영입, 이들과 함께 공연, 영화, TV 프로그램, 뮤직비디오 등에서 활약을 하면서 대중들에게 힙합 문화는 물론 비보이의 존재감을 알리게 한다.

(2) 비보이의 성장과 배틀

초기의 비보이는 쿨 허크와 밤바타라는 힙합의 양대 산맥에 의해 탄생되고 알려진다. 그럼에도 힙합은 미국의 대중문화에서 주류가 아닌 할렘으로 대표되는 도시의 외곽 거리에서 디제잉과 엠쌔를 뺀 언더그라운드 문화일 뿐이었다. 비보이 역시 DJ와 MC가 만든 원초적인 리듬에 맞춰 아무런 의미 없는 몸짓에 불과하였다. 사실 ‘hip hop’에서 ‘hop’의 사전적 의미는 ‘(깡충)뛰다’로서 미국에 이민 온 아프리카 흑인들이 히프를 뛰기면서 걷는 모습을 표현하는 동사로도 통용된다. 이렇듯 ‘hop’의 다양한 행위에 속하는 ‘한 발로 깡충 뛰거나 뛰어오르는 행동’인 아프리카 보이 오잉(Africa boioing)이 뉴욕 브롱크스 지역에서 활동하던 비보이와 접목되면서 비보이라는 춤은 조금씩 구체적인 체계를 갖추게 된다. 그리고 오늘날 비보이의 가장 중요한 틀인 배틀(battle)은 비보이의 성장에 큰 역할을 담당한다.

비보이에 배틀의 형식이 추가된 것은 1970년대 뉴욕 빈민가의 시대적 상황과 연결된다. 당시 흑인이 지배하던 뉴욕의 뒷골목에 남미 경제의 붕괴로 살길을 찾아 미국으로 밀입국한 히스패닉계 젊은이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이 지역의 주도권을 쟁취하기 위한 흑인과 히스패닉 사이에 처절한 생존권 다툼 속에서도 그들은 유일하게 힙합 문화를 공유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들은 빠른 리듬에 맞춰 브레이크 댄스, 즉 비보이를 추었는데, 이때만은 폭력을 행사하지 않기로 묵계를 맺는다. 하지만 이러한 묵계에도 불구하고 화를 참지 못하는 경우, 비보이들이 상대구역으로

래시댄스>(1983), <할렘가의 아이들(Bear Street)>(1984) 등에 출연하였으며, 수많은 공연을 통해 전 세계의 비보이들의 우상이자 존경의 대상이었다.

몰려가서 춤으로 자신들의 위세를 보이기도 했다. 위협적이고 기량 높은 모습을 보임으로써 상대의 기를 죽이고 기선을 제압하려는 목적으로 이들은 온갖 기묘한 동작을 연출하였다. 춤을 추는 행위를 일종의 전투로 여겼던 비보이들의 대회를 배틀로 부르는 것은 여기서 기원을 갖는다. 그리고 이러한 배틀을 통해서 비보이의 다양한 스텝인 탑 락(top rock), 손동작인 업 락(up rock), 풋워크(footwork) 등의 춤 동작이 창안된다.

(3) 비보이의 발전 및 쇠퇴

빈민가의 젊은이들을 주축으로 미국 하층민의 문화를 대변하던 비보이는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영화와 TV, 그리고 공연을 통해 미국 전역에 알려지고 대중문화의 한 부분으로 인식되었다.⁸⁾ 뉴욕 빈민가의 흑인과 히스패닉들이 폭력 대신 선택한 배틀은 새로운 거리문화로 점차 자리 잡기 시작한 것이다. 1980년 초부터 비보이는 대중의 폭넓은 관심을 끌게 되었으며, 유명한 비보이가 방송이나 영화에 출연하거나 뮤직비디오에 빼놓을 수 없는 존재가 된다.

힙합 뮤지션 밤바타가 결성한 ‘줄루 네이션’에 참여한 비보이 RSC는 영화 <플래시댄스>에 출연해서 유명세를 탔으며, 1981년 8월, 링컨센터(Lincoln center) ‘아웃 오브 도어스(Out of Doors)’ 축제에서 라이벌 팀인 ‘다이내믹 록커스(The Dynamic Rockers)’와의 배틀은 미국의 방송과 신문의 초관심사가 되었던 이슈였다. 또한 RSC는 1983년, 영국 여왕의 초청으로 ‘로얄 버라이어티 퍼포먼스(Royal Variety Performance)’에 참가하는가 하면, 이들이 발표한 노래 ‘Hey You, The Rock Steady Crew’는 100만장이 팔리며 영국 차트 10위권 안에 들기도 하였다. RSC와 쌍벽을 이루던 비보이 뉴욕 시티 브레이커스(New York City Breakers) 역시 영화 <할렘가의 아이들>에 출연을 통해 대중들에게 알려졌다. 이후 1985년 레이건 대통

8) RSC와 뉴욕 시티 브레이커스의 활약에 대해서는 다음 책에서 인용하였음을 밝힌다. 이우재, 앞의 책, 45-50쪽.

령의 재선 취임식에서 보여준 퍼포먼스를 통해 세계적인 비보이 팀이 되었다.

RSC와 뉴욕 시티 브레이커스의 예를 통해 볼 수 있듯이, 끝없이 비상할 것처럼 보였던 비보이 문화는 1980년대 중반 이후 그 역동적인 움직임을 멈추게 된다. 비보이 문화의 갑작스런 쇠퇴에는 비보이의 상업화와 행정 당국의 정책적 변화라는 두 가지 이유를 들 수 있다. 우선 비보이의 상업화로 인한 쇠퇴에는 내부적 요인과 외부적 요인이 있다. 내부적 요인으로는 비보이가 대중문화의 주류로 안착하고 비보이 팀들이 대중매체를 통해 유명해지면서 이들의 춤을 배우려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발생했다. 자신들의 춤을 가르치는 과정에서 비보이의 상업화에 대한 비보이 팀, 기획자, 투자자의 의견이 일치되지 못하고 생긴 불화로 인해 비보이 팀의 자생력이 사라진 것이다. 외부적 요인에는 비보이 문화에 대한 대중적 관심은 비보이들의 대중화를 가능하게 했지만, 이들이 매스컴에 과다하게 노출되고, 그 결과 이들의 상품성에 주목한 자본이 비보이 문화를 상업적으로 활용하면서 역으로 대중의 관심을 잃어버리게 된 점이다.

이러한 비보이의 상업화에 따른 쇠퇴 이외의 또 다른 이유로는 1980년대 말기 뉴욕시 당국에 의해 그래피티에 대한 정책 변화에 있다. 슬럼가의 벽이나 지하철 차량에 락카 캔을 사용하여 현란하고 아름다운 그림이나 글씨 등을 그리는 행위인 바밍(bombing)을 도시의 미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행정당국이 금지시켰던 것이다. 램싱, 디제잉, 그리고 비보잉과 함께 힙합 문화를 구성했던 그래피티의 통제는 그 어떤 경로로든 80년대 중반 이후 비보이 문화의 쇠퇴에 영향을 끼쳤다고 평가된다.

(4) 비보이의 부활과 확산

80년대 중반 이후 갑작스런 비보이 문화의 쇠퇴 이후, 비보이들은 차가운 대중의 시선을 뒤로 둔 채 언더그라운드에서 미미하게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몇 년간의 쇠퇴기 이후 1990년대 들어서부터 비보이

는 대중들에게 자신들의 존재를 다시 알리게 된다. 태생적으로 언더그라운드에서 발생한 힙합 문화가 갖는 생명력은 비보이들로 하여금 다시 모여서 춤을 추게 만든 것이다. 우선 미국에서는 전설적인 비보이 팀, RSC의 크레이지 렉스(Crazy Leg's)가 1989년 새로운 멤버로 팀을 재구성, 미국 비보이 역사의 부활을 알리는 활동을 재개하였다. RSC가 주축이 되어 힙합을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B-Boy Summit' 대회와 'RSC Anniversary' 등의 축제를 열면서 비보이 문화는 다시 대중적 관심과 인기를 얻게 된다.

하지만 이 시기 비보이 역사에서 주목할 부분은 미국 이외의 지역인 유럽과 아시아에서 등장한 힙합 문화와 비보이 활동이다.⁹⁾ 상업화와 행정 정책의 변화로 인해 미국에서 비보이 문화가 쇠퇴하는 과정에서도 이들 지역에서는 80년대 전성기 때 전파된 비보이 문화를 성장시켜왔다. 프랑스, 독일, 영국, 이탈리아가 중심이 된 유럽은 초기 미국의 비보이의 몸짓을 따라 배우는 것에서 출발한 뒤 점차 그들만의 스타일을 보여주게 된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와 아랍계가 주축이 된 프랑스에서는 이미 발전된 춤 문화에 힙합이 가미된 색채를 보인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비보이 대회인 BOTY를 개최하는 독일은 전통적으로 파워 무브에 강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¹⁰⁾

아시아에서 일본은 가장 먼저 힙합 문화를 받아들인 나라이다. 다양하고 이국적인 문화에 대한 거부감이 적은 일본에서는 비보이 관련 영화가 미국에서 개봉되면 해당 영화를 수입하여 개봉하곤 하였다. 하지만 일본의 대중문화 시스템이 유행에 민감하고 문화의 순환이 빠른 이유로 해서 매니아 계층에서 받아들인 비보이 문화는 주류 문화에 편입되기 보다는 언더그라운드에서 그 영역을 넓혀나가는 추세이다.¹¹⁾ 물론 한국의 비보

9) 유럽과 아시아에서의 비보이 문화에 대해서는 다음 책에서 인용하였음을 밝힌다. 김효근, 『춤으로 세계를 제패하다, 대한민국 B-boy』, 길벗, 2006, 28-33쪽.

10) 세계 4대 메이저 비보이 대회에서 한국이 유독 BOTY에서 강한 면모를 보이는 것은 파워 무브를 강조하는 독일의 성향과 한국 비보이 크루와의 공통점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본문의 3장을 참조할 것.

11) 비주류 영역에서 활동하는 비보이들은 상업화를 최대한 거부하고 명예를 중시

이 또한 1980년대 도입되어 9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알려진 이후, 짧은 기간 동안에 가장 빠르게 발전하여 세계 최정상급에 오른 비보이계의 불가사의로 평가되고 있다.

이처럼 미국에서의 비보이 문화가 쇠퇴하던 1980년대 중반 이후의 시기는 오히려 유럽과 아시아의 비보이 크루들이 자신들의 기량과 팀웍을 다지며 보다 높은 하늘을 향해 비상을 준비하는 기간이기도 하였다. 세계적인 비보이 경연대회가 미국이 아닌 독일에서 1990년에 BOTY가 라는 이름으로 개최된 것은 이러한 사실을 반증한다. 그리고 이 시기에 비보이는 ‘올드 스쿨 힙합(Old School Hip Hop)’과 ‘뉴 스쿨 힙합(New School Hip Hop)’ 두 가지로 분류되는 힙합 스타일의 변화와 연계되어 보다 자유스럽고 즉흥적인 형태의 비보잉으로 발전하게 된다.¹²⁾

3. 한국 비보이의 차별성과 강점

어두운 거리의 불량스러운 춤에서 하나의 독립된 문화로 자리매김한 비보이는 이제 젊은이들은 물론 기성세대에게까지 새로운 문화코드로 등장하였다. 그리고 당연히 비보이들만을 위한 축제가 비보이가 일찍부터 뿌린 내린 곳에서부터 대회라는 형태로 시작된다. 오늘날 세계 4대 국제 비보이 대회가 그것이다. 오늘날 세계적으로 비보이 문화가 확산되고 기량이 평준화 된 것은 세계적으로 우수한 비보이들이 포진한 독일,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의 비보이 크루들이 이들 대회에 참가, 경쟁을 통해 실력을 다진 결과라 할 수 있다.

하는 취향을 보인다. 메이저 비보이 대회에서 일본의 비보이 크루들이 배틀보다는 퍼포먼스 부분에서 항상 우수한 성적을 올리는 것은 이러한 취향과 연관이 있을 수 있다. BOTY 대회의 경우, 일본 크루들은 2010(Mortal Combat), 2009(All Area), 2007(Turn Phrase Crew), 2005(Ichigeki), 2003(Fire Works), 2000(Waseda Breakers), 1998(Spartanic Japan)에서 퍼포먼스 1위에 해당하는 Best Show 상을 차지한 바 있다.

12) 비보잉, 락킹(Locking), 팝핀(Popping) 등이 올드 스쿨 힙합에 속한다면, 뉴 스쿨 힙합에는 하우스 댄스(House Dance)와 뉴 스타일 힙합 댄스 등이 포함된다.

이들 대회에서 대한민국의 비보이 크루들은 독일과 프랑스가 15년 동안 이룩한 성취를 단 5년 만에 이루는 불가사의한 면모를 보여주었다.¹³⁾ 그렇다면 세계 비보이 계에 혜성처럼 나타나 처음 보는 파워 무브(Power move)¹⁴⁾를 구사하는 경이로운 기량을 선보이며 그 어떤 나라의 비보이 크루도 따라갈 수 없는 테크닉을 소유한 한국 비보이의 차별성과 강점은 무엇일까. 이를 위해 우선 세계 비보이 4대 대회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이들 대회에서 한국 비보이 크루가 거둔 전적을 살펴보자.

(1) 세계 비보이 4대 대회와 한국 크루의 성취

① 배틀 오브 더 이어¹⁵⁾

‘비보이들의 월드컵’이라 평가받는 BOTY는 독일 하노버(Hanover)에서 1990년부터 개최된 가장 큰 규모와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국제 비보이 대회이다. BOTY는 토너먼트 형식으로 치러지는 배틀 외에도 퍼포먼스 부문이 따로 있다. 경기방식은 세계 20여 개국에서 예선을 걸쳐 출전한 크루들이 퍼포먼스를 벌인 뒤 심사를 통해 상위 4개 팀이 선발된다. 이때 퍼포먼스에서 1위를 한 팀에게 베스트 쇼(Best Show)상이 수여된다. 그리고 선발된 4개 팀들끼리 토너먼트 형식의 배틀을 벌여 최종 우승팀을 결정한다. 참가 크루들의 퍼포먼스와 배틀 능력 모두를 평가하는 BOTY의 경기 운영방식은 이 대회를 참관하는 관람객에게 큰 호응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점이 BOTY를 평균 관람객 수가 3, 4만 명을 상회하는 성공적인 비보이 대회로 만들게 된다. 또한 뛰어난 실력을 갖춘 비보이 크루는

13) 세계 비보이 계에서 차지하는 한국 크루의 위상과 기량에 대해서는 영화 <플래닛 비보이>를 참조하였음을 밝힌다.

14) 대부분 원심력을 활용하는 회전 기술로서 강한 근력, 고도의 균형 감각, 세밀한 기술을 바탕으로 전개되는 기술. 파워 무브는 회전 시 다리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회전을 통해 만들 수 있는 원의 반경이 넓은 편이고 그래서 상당히 역동적으로 보이는 기술이다.

15) ‘배틀 오브 더 이어’ 대회에 대한 보다 구체적 정보는 아래의 웹 주소를 참조할 것; <http://www.braunbattleoftheyear.com>

물론 영향력 있는 스폰서, 대중 매체의 관심을 끌어들여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대회로 인정받고 있다.

② 유케이 비보이 챔피언십(UK B-boy Championship)¹⁶⁾

영국에서 1996년부터 시작된 이 대회는 매년 16개국을 대표하는 크루들이 출전하여 예선을 치른 후, 8개 팀을 선정 8강 토너먼트 배틀을 통해 우승팀을 가린다. 이 대회는 BOTY와 달리 배틀로만 우승팀을 선정하기 때문에 관중의 호응이 매우 높다. 팀별로 참가하는 팀 배틀과 개인이 출전하는 솔로(solo) 배틀로 구성된다.

③ 프리 스타일 세션(World Session Free Style)¹⁷⁾

미국의 비보이 크로스 원(Cros 1)이 1998년에 처음 개최한 팀배틀 대회에서 출발한 프리스타일 세션은 BOTY와 UK 비보이 챔피언십을 이어 가장 중요한 비보이 대회 중 하나이다. 초창기 미국에서만 열리던 방식에서 탈피하여, 현재는 미국, 유럽, 한국, 일본 등 지역별 예선을 거친 후 월드 파이널(World Final)에서 우승을 놓고 겨루는 형식을 치른다. 힙합 문화와 비보이의 탄생지라는 미국의 자존심과 오리지널 스타일에 가까운 비보잉을 선호하는 관계로 해서 여타의 국제 대회와 달리 한국의 비보이 크루에게는 난공불락의 대회로 남아 있었다. 하지만 갬블러 크루가 2007년 준우승을 달성하고 진조 크루가 2011 대회에서 한국은 물론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우승함으로써 한국의 비보이 실력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④ 레드불 비씨원(Red Bull BC One)¹⁸⁾

2004년에 시작된 레드불 비씨원은 매 대회마다 개최국을 옮기면서 세

16) ‘유케이 비보이 챔피언십’ 대회에 대한 보다 구체적 정보는 아래의 웹 주소를 참조할 것. <http://bboychampionships.com>

17) ‘프리 스타일 세션’ 대회에 대한 보다 구체적 정보는 아래의 웹 주소를 참조할 것. <http://freestylesession.com>

18) ‘레드 불 비씨 원’ 대회에 대한 보다 구체적 정보는 아래의 웹 주소를 참조할 것. <http://www.redbullbccone.com>

계 최고수준의 비보이 16명을 초청, 1:1 솔로 배틀로 토너먼트 방식으로 최후의 승자를 가릴 때까지 계속해서 배틀을 벌이는 특징을 갖는다. 타 대회에 비해 최근에 시작된 레드 불 비씨 원은 안마사, 전용연습실 등의 비보이들을 위한 배려와 각종 시스템이 잘 구비된 대회로 인정받고 있다. 또한 배틀이 진행되는 무대를 중심으로 둥그렇게 배치된 관객석은 세계적인 비보이들의 실력을 보다 가깝고 다양한 각도에서 지켜볼 수 있게 함으로써 나머지 세계대회와는 다른 독특한 차별성을 보여준다. 특히 이 대회는 배틀을 벌이는 비보이의 화려하고 복잡한 무브와 손짓, 표정 등을 고품질의 카메라로 포착함으로써 일반 대중들에게 레드불 비씨 원만의 뛰어난 영상미를 전해주는 전략도 취하고 있다.

지금까지 설명한 세계 비보이 4대 대회에서 한국의 비보이 크루들이 올린 성과를 보면 <표 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한국은 BOTY와 유케이 비보이 챔피언십에서 유난히 강한 면모를 보여준다. 이것은 1:1 솔로 배틀로 치러지는 레드 불 비씨 원이나 미국 오리지널 비보이 색채를 원하는 프리 스타일 세션과 달리, 이들 두 대회가 팀웍을 중시하는 경기 성향을 보이기 때문이다.

〈표 1〉 세계 비보이 4대 대회와 한국 크루의 성취¹⁹⁾

개최 년도	BOTY	UK B-boy Championship	Red Bull BC One	Free Style Session
2001	비주얼 쇼크(퍼)		X	-
2002	익스프레션	프로젝트소울(팀) 홍텐(2 : 솔로)		-
2003	익스프레션(2) ²⁰⁾ 갬블러(3)			-

19) 표에서 크루 명은 우승을, ‘퍼’는 퍼포먼스 우승을, ‘팀’은 팀배틀 우승을, ()의 숫자는 우승 이외의 순위를 말한다.

20) 국제대회에 참가하는 비보이들은 크루라는 단일팀으로 나가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한국의 비보이 크루는 프로젝트 소울(Project Soul)이라는 국가 대표 팀을 결성, 2002년부터 세계대회를 석권하게 된다. 이후 세계 비보이계로부터

개최 년도	BOTY	UK B-boy Championship	Red Bull BC One	Free Style Session
2004	갬블러	김효근(솔로) 프로젝트소울(팀) 홍텐(2 : 솔로)	-	-
2005	라스트포원 갬블러(3)	프로젝트소울(팀)	홍텐(2)	-
2006	라스트포원(2) 드리프터즈(3)	드리프터즈(2)	홍텐(드리프터즈)	-
2007	익스트림	T.I.P.	홍텐(3)	갬블러(2)
2008	T.I.P.(2)	-	윙(진조 크루)	-
2009	갬블러	-	-	-
2010	진조 크루	-	-	-
2011	-	진조 크루(2)	-	진조 크루

(2) 한국 비보이의 강점

한국 비보이가 구현하는 비보잉은 현재 세계에서 최고 수준으로 인정받고 있다. 익스프레션 소속으로 2002년 BOTY 결승전에서 출전한 홍텐이 상대팀 앞에서 완벽하게 구사하여 ‘홍텐 프리즈’(freeze; 춤을 추는 도중에 특정한 동작에서 움직이지 않는 기술)라고 고유명사화 된 홍텐의 무브나 2004년 UK 비보이 챔피언십 팀 배틀 4강전에서 김효근이 보여준 엘보 스핀(elbow spin) 16과 1/2 회전은 오늘날까지도 세계의 비보이들에게 회자되는 전설 같은 무브로 남아있다. 이러한 무드들이 모여서 오늘날 한국 비보이의 춤 동작을 담은 비디오는 해외 비보이 사이에서 일종의

전력이 막강한 대표팀보다는 단일 크루로 참가해달라는 부탁을 받게 된다. 결국 2005년을 마지막으로 프로젝트 소울은 해체된다. 그리고 2006년부터 국내 예선을 통해 1등한 단일팀이 세계대회에 출전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되었다. 또한 국제대회 참가하는 팀은 한 국가 당 한 팀이다. 하지만 전년도 우승팀의 경우 다음 대회에 자동출전인 관계로 특정한 해에는 예선 우승팀과 더불어 두 개의 팀이 참가할 수 있다.

교과서처럼 인정되고 있는 것이다.

마이클 잭슨의 ‘문 워크’나 영화 <플래시댄스>의 브레이크 댄스 등을 통해 간헐적으로 보이는 비보이는 1980년대 중반 AFKN을 통해 매주 방송되던 ‘소울트레인(soultrain)’이란 프로그램을 통해서였다.²¹⁾ 당시 흑인들이 주축이 된 비보이들이 현란한 풋워크를 보여준 후 프리즈(freeze) 동작을 취하던 모습은 우리 젊은 춤꾼들에게는 생경한 장면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후 배틀의 영향으로 더 빠르고 역동적인 움직임이 도입되어 만들어진 윈드 밀 windmill(등의 윗부분과 머리를 땅에 대고 이를 축으로 삼아 다리를 계속 돌리는 파워 무브)이나 헤드 스핀(head spin) 등의 파워 무브(power move) 기술은 한국의 젊은 춤꾼들이 소화해 내기에는 불가능한 충격적 장면이었으리라. 하지만 몸이 유연한 흑인들에 의해 만들어진 이러한 기술은 이제 세계의 어느 나라보다도 한국의 비보이들이 가장 화려하고 역동적으로 구현하는 전매특허가 되었다.

그렇다면 2000년대 초부터 세계무대에 발을 디딘 한국 비보이들이 짧은 시간 동안 이룩한 화려한 전적은 어떻게 가능했을까. 신체가 작고 몸이 덜 유연한 한국인들에게 비보이는 적합하지 않은 영역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세계 4대 비보이 배틀 대회를 잇달아 석권하고 있는 그 잠재력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이제 한국의 비보이 크루는 어떤 장점을 지니고 있는지를 알아보자.²²⁾

21) 이 방송을 통해 소개된 비보잉에 고무된 한국의 춤꾼들은 비보이들의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서울 용산 이태원의 ‘문라이트(moonlight)’라는 나이트클럽에 모이게 된다. 비록 방송이나 공연에서는 가수들의 들러리로 백댄서에 머물렀지만, 클럽에서 비보이들은 자신들의 기량을 마음껏 보일 수 있었던 유일한 장소이기도 했다. 특히 새벽 4시 경에 열리는 브레이크 댄스 타임(비보이 타임)에는 춤에 목숨을 건 국내 최고의 춤꾼들이 활약하던 시간이기도 했다. 이 클럽에서 활동했던 춤꾼들, 황대균과 하휘동(T.I.P. ; Tim Is Perfect), 이우성(익스프레션 Expression), 오성훈(피플크루), 리버스(Rivers) 크루 등이 한국의 1세대 비보이들이다. 한국의 비보이 1세대(관점에 따라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에 대한 부분은 다음 책을 참조할 것. 김영대 외, 앞의 책, 188-190쪽, 202-203쪽; 이우재, 앞의 책, 63-66쪽; 장경호, 「2006년도판 한국 비보잉센」, <http://cafe.daum.net/bboy>의 「Darkness 비보잉 칼럼(미출판 자료)」.

① 끝없는 연습과 완전한 몰입

한국 비보이 크루들이 보여주는 완벽에 가까운 기술은 멋진 무대를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땀 흘리는 끝없는 연습의 결과이다. 외국 비보이들이 길에서 연습하거나 클럽에서 춤으로 즐기는 것에 비해 한국 비보이는 팀 연습실을 만들어 매일 연습을 하는 것이 우리의 비보이들이 세계에서 주목받는 실력을 갖추게 한 원동력인 것이다. 사실 외국의 비보이는 생계를 위해 아르바이트도 하고 여가를 즐기면서 연습을 하는데 비해, 한국 비보이 중에는 자신의 인생을 걸고 하루 10시간 이상 연습에만 몰두하는 사람도 있다. 새로운 춤동작을 완벽하게 연마할 때까지 엄청난 시간의 연습과 실패에 실패를 거듭하며 동일한 기술에 몰입하는 자세야말로 한국 비보이만의 차별적 경쟁력이라 할 것이다.

② 인터넷을 통한 비보이 학습

한국의 모든 가정에 보급된 초고속 인터넷은 비보이 기술을 온라인으로 습득하는데 커다란 역할을 담당한다. 과거 비보이 기술의 전수는 특정한 공간으로 일일이 직접 찾아다니며 배웠었다면, IT 인프라의 강국인 한국에서는 온라인 매체에 매일같이 업로드된 국내외 최고 실력과 비보이 동영상 자료를 누구나 다운로드 받아 배울 수 있게 되었다. 그 결과 고도의 테크닉을 연마하거나, 독창성을 더한 자신만의 새로운 동작을 고안함으로써 상대방의 약점을 딛고 이길 수 있는 비장의 기술을 익힐 수 있게 된 것이다.

2005년 BOTY 대회에서 우승을 한 ‘라스트 포 원(Last for One)’의 경우가 인터넷 학습을 통해 실력을 연마하였다고 한다. 이들은 전주라는 지방이 갖는 지리적 한계와 기술적 노하우의 빈약함을 인터넷을 통해 극복하

22) 본문에서 제시되는 한국 비보이의 장점은 비보이 관련 서적, 대중매체 기사, 방송자료, 영화 등에서 비보이(크루) 멤버와 비보이 관련자들이 언급한 내용들을 정리, 구성한 것이다.

고 세계무대에 혜성처럼 화려하게 등장한 것이다. 이처럼 현재진행형으로 끊임없이 새로운 기술이 출현하는 비보이계에서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IT 인프라의 가치는 한국의 경쟁력의 밑거름이 되었다고 평가된다.

③ 한국인의 신체구조

비보잉의 기술은 크게 서서하는 스텝 위주의 춤인 톱락, 일상의 행동을 춤으로 표현한 업락, 손을 바닥에 짚고 다리를 쓰는 풋워크, 비보잉 동작 중 순간적으로 힘을 쥐 멈추는 프리즈(freeze), 원심력을 이용하여 회전 동작인 파워 무브 등으로 구성된다. 비보잉은 톱락, 플로어락(floorlocks), 프리즈가 주축이 된 초기 이후 1970년대 후반 몸의 각 부분을 이용한 스핀 동작이 만들어진다. 이러한 기술은 유연한 몸을 지닌 흑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몸이 덜 유연하고 키가 작은 대부분의 한국인에게서는 단점으로 작용하였다. 하지만 오늘날 화려함과 역동적인 동작을 보여주는 고난이도의 기술이 대중들에게 호응을 받으면서 키가 작다는 단점은 비보잉 동작에 장점으로 바뀌었다. 한국의 비보이들은 키가 큰 서양인에 비해 무게중심이 낮은 작은 키의 안정성으로 우리만의 독특하고 개성 넘치는 배틀 무브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게 된다.

④ 한국의 집단 문화

우리 민족의 놀이문화에는 함께 모여 같이 즐기는 특성이 있다. 마당놀이, 판소리, 탈춤, 굿 등과 같은 전통 놀이문화의 공통점은 한 개인의 놀이가 아닌 조직적으로 집단을 구성한 배우들이나 배우와 관객이라는 집단이 함께하는 놀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개인 기량이 외국 비보이들에 비해 떨어지더라도 팀을 구성하여 배틀의 형식으로 치러지는 대회에서 경쟁력을 갖추 수 있었던 것이다. 또한 관객과 선수가 하나가 되어 경쟁 보다는 한 바탕 축제를 열린 공간에서 벌이는 비보이 대회의 속성은 광장에서 판을 벌렸던 우리의 놀이 문화의 그것과 유사한 점이 많다.

⑤ 박자에 강한 한국인의 민족성

비보이는 비트를 타고 춤을 추는 것이다. 그리고 비트의 근저에는 박자가 존재한다. 그런데 한국의 전통 춤인 탈춤, 마당놀이, 굿 등은 박자와 추임새에 따라 춤을 추는데 이는 비트를 타고 춤을 추는 비보잉과 근본적으로 비슷하다. 이처럼 박자에 강한 민족성이 비보이의 경쟁력을 상승시키는 역할을 하였다고 판단된다.

지금까지 살펴본 요소가 한국 비보이가 가졌던 성공적인 경쟁력의 긍정적 요인이라면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부정적 요소 또는 특수한 상황이나 다른 성공 요인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6) 억압적인 사회제도를 향한 저항

한국의 청소년들이 마주하는 사회제도, 특히 교육환경은 비보이 문화를 형성하는데 의미심장한 영향을 주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비보이의 원류인 힙합의 정신이 주류 문화와 기득권 사회에 대한 반항과 투쟁에서 큰 동력을 찾았던 것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의 비보이 역시 제도화된 공교육 시스템, 학벌과 인맥이 지배하는 관료사회, 승자와 성공만이 기억되는 기성사회에 대한 저항인 것이다. 따라서 오늘의 청소년들을 억압하는 사회 현실이 더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비보이 문화를 만들었다고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개성이 무시되고 자유가 억압된 전체적이고 획일적인 한국의 교육환경은 비보이들이 추구하는 강렬한 자기표현의 문화를 확산시키는 근거가 되었기 때문이다.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그들에게 길거리, 구석진 공터, 학교 운동장, 공공의 광장 등 그 어떤 장소에서든 특별한 장비를 필요로 하지 않는 비보잉은 해방과 개성의 출구였기 때문이다. 더욱이 비보이의 근원인 힙합 문화 역시 기존 질서와 기득권을 부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무언가를 만드는 것임을 인식한다면, 모순적이게도 한국의 사회제도가

한국 비보이의 세계적 위상을 구축하는데 나름대로 역할을 하였다고 지적할 수 있겠다.

(7) 병역의 의무

한국의 억압적 사회제도와 더불어 모든 청소년들에게 부여된 병역의 의무 또한 비보이들에게 자극을 주는 한국 특유의 경쟁력이라 하겠다. 일반적으로 한국 사회의 남성들에게 군 입대는 삶을 두 부분으로 나누는 분기점이다. 병역의 의무와 군 생활은 청소년과 청장년, 현역과 예비역으로 갈리며 전혀 다른 문화에 자신이 속한다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수많은 비보이들은 입대 전까지 엄청난 시간과 열정을 투자한다. 물론 한정된 시간 동안 최고의 기량을 쌓아야 한다는 부담감도 존재한다. 특히 일반적인 운동선수와 달리 비보이가 군대에서 특별한 기술로 인정되지 못하다는 점도 이러한 부담감에 더해진다. 하지만 이러한 독특한 상황이 한국의 비보이들로 하여금 짧은 시간 짧은 나이에 세계를 제패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 것임에는 틀림없다.

4. 한국 비보이 문화의 발전을 위한 제언

세계대회의 잇따른 석권으로 국내에 뒤흔들기 불어 닥친 비보이 열풍을 문화콘텐츠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비보이가 과연 K-pop, 드라마, 영화의 활약을 잇는 한류의 새로운 코드이자 한류상품이 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던질 수 있다. 사회 기득권의 관심에서 벗어난 음지에서 태동되어 공부를 포기하고 춤에만 몰입했던 비주류 청소년들의 하류문화였던 비보잉이 기성세대의 편견을 극복하고 공연예술계의 새로운 코드이자 트렌드로 등장한 것은 국내 비보이 인프라에 대한 저변과 자신감에서 출발한다.²³⁾

23) 하위문화에서 대중문화의 주류의 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비보이 문화는 배

하지만 대중문화가 갖는 특성과 이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그러하듯 비보이 문화 또한 일시적인 유행으로 지나갈 위험성은 항상 존재한다. 따라서 이색적인 문화 트렌드로 당장 보기에 화려하고 멋있는 비보이이나 여기에 단순하게 결합된 드라마, 영화, 뮤지컬, 퍼포먼스 등의 생명력은 결코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국내에서 공연되는 이들 작품들이 표면적으로만 비보이를 표방할 뿐 실제로는 현대무용을 포함한 다양한 춤들이 혼합된 퍼포먼스이거나 힙합 콘서트의 형태이기 때문이었다. 결과적으로 비보이 관련 콘텐츠들에서 춤과 이야기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지 못할 경우, 이색적 문화에 대한 호기심에 이끌린 관객과 새로운 문화 코드를 갈구하던 평단은 공연예술 장르로서의 비보이의 자생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보이 문화가 비보이든 공연예술로든 여타의 대중적인 문화 상품이 그러하듯 오락적 흥미와 상업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진정한 문화적 특성과 가치가 담겨있는 문화콘텐츠로 굳건히 자리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들불처럼 피어나는 비보이 열풍이 한 순간의 신드롬이 아닌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한 문화예술 콘텐츠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 것인가.

우선, 비보이를 하나의 상품이 아닌 문화콘텐츠로서 인식할 필요가 있다. 둘째, 비보이 문화의 창조적 재생산을 위한 무대, 예를 들어 비보이와 관객이 하나가 되어 공연을 하고 즐길 수 있는 공연장이 많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비보이의 다양한 능력, 즉 비보이들이 제 몫을 하기 위해 춤 이외에 노래나 연기력 등 배우로서의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넷째, 우리

틀, 퍼포먼스 등의 비보이만의 독립된 무대로 대중들에게 선보이기보다는 현재는 무대공연의 형태로 그 외연을 확장하고 있다. 2005년도에 처음 선보인 <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를 기점으로 <비보이 코리아>, <피크닉>, <발랄 High>, <비쇼>, <비보이 동산의 백설공주>, <마리오네트> 등 다양하다. 이들 공연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다음 글을 참조할 것. 강윤주·노명우, 「비보이 공연의 성공요인 분석과 해외진출 방안 연구」, 『인문콘텐츠』 10호, 인문콘텐츠학회, 2007, 266-267쪽.

의 문화에 맞게 흡수되고 정착되어 새로운 한국적 특성을 지닌 비보이 문화를 모색해야 한다. 다섯째, 비보이 문화의 주체와 객체는 대부분 청소년층인 한계를 극복하고 모든 세대의 비보이로 발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비보이 문화에 대한 지속적 지원과 관심이 단기적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한다.²⁴⁾

21세기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신자유주의를 추종하는 경제 구조와 고용 불안정, 한미 FTA를 통해 표면화된 계층 간의 갈등, 디지털 테크놀로지가 결합된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범람 등과 같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규범과 가치관의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 더욱이 입시를 위한 경쟁, 자유가 제한된 사회, 자신들의 끼를 발산할 수 없는 문화 환경에 노출된 청소년들에게 비보이를 비롯한 도시의 거리문화는 잠재되어 있는 그들의 무한한 가능성을 발견하고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역동성의 코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4) 본문에서 제시한 비보이 문화의 발전에 대한 제언은 보다 구체적이고 면밀한 조사와 분석이 요구된다. 한류 문화를 계승하고 확대할 수 있는 비보이가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대상으로 새로운 디지털 문화콘텐츠로서 정착하기 위한 제반 조건에 대해서는 또 다른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참고문헌 |

- 강윤주·노명우, 「비보이 공연의 성공요인 분석과 해외진출 방안 연구」,
『인문콘텐츠』 10호, 인문콘텐츠학회, 2007.
- 김수용, 『힙합』 1-24, 서울문화사, 1999-2004.
- 김영대 외, 『한국 힙합, 열정의 발자취』, 한울, 2008.
- 김정훈, 『위대한 힙합 아티스트』, 살림, 2004.
- 김효근, 『춤으로 세계를 제패하다, 대한민국 B-boy』 길벗, 2006.
- 박선희(글)·임희재(그림), 『댄스배틀』 1, 흥진 P&M, 2007.
- 박형준, 『박형준의 B-boy School』, 도서출판 래, 2006.
- 이우재, 『힙합, 새로운 예술의 탄생』, 돈을새김, 2010.
- 장경호, 「2006년도판 한국 비보잉씬」, 「Darkness 비보잉 칼럼」 (미출간 자료), <http://cafe.daum.net/bboy>.

* 비보이 관련 사이트

- 갬블러 크루 카페 (<http://cafe.daum.net/bboy>)
- 코리안락 (<http://koreanroc.com/>)
- BboyWorld (<http://www.bboyworld.com>)
- BOTY (<http://www.braunbattleoftheyear.com/>)
- Freestyle Session (<http://www.freestylesession.com>)
- Red Bull BC One (<http://www.redbullbcone.com/>)
- R-16 코리아 (<http://r16korea.com>)
- UK Bboy Championship (<http://bboychampionships.com>)

〈ABSTRACT〉

The Popularity and Distinctiveness of Korea's B-boy Crew

Gigook Kim
(Kyunghee University)

Korea's b-boy crews have achieved almost a legendary status as top b-boy performers in the world, making the case to the public that b-boying is Korea's new, representative cultural code as well as a cultural content. The Korean National Tourism Organization has also recognized b-boying as Korea's new *Hallyu* content with the result that *R-16 Korea, World B-boy Masters Championship* has been held in Korea since 2007, moving the mecca of b-boying to Korea from Germany. Today, the b-boy and b-boying are no longer underestimated or misunderstood but accepted as an independent part of culture as well as the most dynamic and beautiful art form that can be expressed physically.

This paper looks at how b-boying has come to represent Korea as digital culture content in the new media age of the 21st century. It examines the birth of b-boying as part of hip hop and its development, the achievements of Korean b-boy crews in the world's four major contests, and the strengths of Korean b-boys that made possible their success. Finally, the paper makes suggestions on how b-boying can become firmly established as part of Korea's popular culture.

Key words : B-boy, Korean B-boy crew, hip hop, culture contents, B-boy culture

논문접수일 : 3.15 / 심사기간 : 3.16~4.5 / 게재확정일 : 4.10
